

體着手ト록 指示되었다.

八月二十八日 一層 蓋瓦로부터 解體가 始作되어 八月三十一日 五層 蓋瓦解體가 完了되었다.

九月一日 文化財委員會側 崔淳雨 指導委員이 現場에 到着, 解體節次를 檢討했고 忠北道知事를 訪問, 이 工事의 推進에 따르는 施工廳으로서의 措施와 支援을 要請해서 即刻 道職員の 現場配置 및 警察官의 警備措置 等이 取해졌다.

木部 解體는 九月二日 五層 椽木부터 着手되어 九月九日 五層 全體가 完了되었다. 五層 解體 中心柱 二本을 解體하고 相輪部는 假屋蓋 施設時 이미 解體하였다.

相輪部는 頂部가 南西로 約十五度 기울고 露盤은 水平에서 約三寸 같은 方向으로 傾斜를 이루었다.

五層 椽木의 大部分은 後補의 것이 많았고 狀態는 良好한 편이었다. 春舌는 心柱에 柱頭장부로 끼웠으나 四個 모두 빠져나오고 머리의 沈下는 南西와 北西의 것이 가장甚하고 南東의 것이 狀態가 良好하였다. 그러나 腐蝕度로 보면 東北의 것이 再用될 수 있을 뿐 他 三個는 再使用이 어려울 것 같다.

拱包는 隅包 및 空間包 모두 變位 歪曲되었다. 四天柱 最上部分부터 하여 올린 괴를차임 上部의 東과 西의 內目道里 밖에 서 墨書의 上樑文이 發見되었다(後稿로 미물). 墨書狀態는 比較的 良好하여 判讀이 可能하다. 이 上樑文에서의 年代는 天啓 六年(西紀 一六二六年 仁祖 四年) 丙寅으로 記錄되고 있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던 一六二四年 甲子年과는 二年의 差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九月十日 現在 四層 拱包가 解體 中에 있다. (一九六六年 九月十日)

第九卷 第十號 通卷九十九號
清平寺 文殊院記碑片의 調査

黃 壽 永

江原道 春城郡 北山面 清平山 清平寺는 高麗 眞樂公 李資玄 隱棲의

第九卷 第十號 通卷九十九號

땅으로서 이름 높다. 그는 이곳 山水의 幽絶함을 사랑하여 二十八歲에 捐官入山한 후 享年六十五로 이곳서 入寂(仁宗三年 一一二五年)하기까지 三十七年間 머무르면서 禪寂을 偏愛하였었다. 그 후 이 寺院에는 高麗 朝鮮 兩朝를 통하여 名僧 大德의 住錫이 잦아서 指空 懶翁 金時習 普雨^①의 이름이 또한 傳하고 있다. 동시에 詩人墨客으로 이곳을 찾은 人士가 그치지 않았으며 近世에 이르러서는 愚潭 丁時翰이 이곳에 이르러 仙洞息庵에서 數日을 滯留하면서 寺觀의 모습과 眞樂公의 遺跡을 두루 찾아 그 高風을 追慕하고 「若出世外 思欲構成數間茅屋 追蹤前修 以終餘日天果 遂吾願」이라고 그의 「山中日記」에서 吐露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같은 名刹도 韓末에 이르러서는 거의 廢寺의 지경에 이르러서 오직 極樂殿을 비롯하여 廻轉門(現存 寶物一六四號)과 寮舍 數棟을 남겼을 뿐이며 古碑로서는 일찍부터 이름 높던 「眞樂公重修文殊院記碑」(仁宗八年 一一三〇建立)만이 上下에 破壞된 모습을 지니면서 僅存하고 있다(大正元年 關野貞·朝鮮古蹟調査表 및 遺蹟寫眞目錄 葛城末治·朝鮮金石攷 參照).

이같은 寺勢는 日政期를 통하여 크게 變함이 없었던 듯 한데 다만 이곳에서 말하러 하는 文殊院重修記碑만은 一九一四年에 이르러 座碑에서 뽑아 木箱子에 넣어서 保存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서는 楡帖寺本末寺誌^② 清平寺條(六九八頁)에 「古碑는 大正三年 十二月十九日 郡守 申圭善 郡書記 朝田直夫 雇員 姜漢求 立會下에 櫃中에 入하여 國寶로서 極樂寶殿에 藏置하다」고 하였다. 그 후 이 碑石에 대하여서는 별다른 기사는 아니 보이나 日政期 寶物로 指定된 이 極樂殿과 더불어 無事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 碑石이 受難케 된 것은 解放後 數年이 지난 一九四九年 十二月五日 本寺에 居住하던 一精神異狀者의 放火로서 極樂殿이 全燒되었을 때라고 생각된다. 清平寺는 그後 다시 動亂의 一·四後退 이후 能仁殿등이 爆擊으로 全燒될 때 다시 그 속에서 再次 災難을 당하고 그대로 埋沒되었다고 생각된다. 極樂殿址가 아니고 그 밑의 能仁殿址에서 出土된 까닭은 아마도 極樂殿 全燒後 收拾된 碑片을 다시 能

仁殿으로 옮겨서 保管되어 오다가 마침내 그곳에서 더욱 尤甚한 被害를 받았다고 보이는데 과연 그렇다면 참으로 저승된 厄運의 連續이었다고 하겠다.

保存을 위하여 屋內保存한 善意的 措置가 드리어 그 主破의 原因이 되었던 것이다. 필자는 淸平寺가 戰災로 全燒된 후이 眞樂公重修文殊院 記碑의 行方을 궁금이 여겨왔으며 기회를 얻어서 그 破片이나마 探索하려 하면서도 마침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런데 지난 九月二十八日 佛敎新聞(二六七號 九月二十九日 發行)에서 同碑發見의 記事를 읽었고 그와 동시작에 현재 江原道 麟蹄郡 上東面 白蓮庵에 待游宗인 姜昔泉스님으로부터 郵送된 出土碑片 數枚의 拓本寫眞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經禪를 읽을 수가 있었다(九月二十一日付 書信).

「去九月二十日 百潭寺住持스님께서 此白蓮窟로 오셔서 淸平寺에 碑石破品이 나왔다고 하길래 급히 달려가 보니 그전에 先生님께서도 말씀하시던 眞樂公文殊院重修記의 破品이었읍니다. 同石文은 舊能仁殿址 東後便 뒷마루 地點에서 發掘되었는데 과거에 비석을 본사람이 절에 와서 비석의 櫃에 넣어져서 있는 場所를 가르켜 주어서 現住持 知幻師가 去九月八日 午前九時에 파내었습니다. 作業은 비교적 功상스럽게 되었으며 불에 타서 完全히 破散이 되었으나 其中 몇개는 제법 文銘을 추려볼 수 있기에 對照해 보았읍니다. 그리고 지금 住持室에 保管 中이며 現場도 그대로 더 손대지 말라고 付託하였읍니다. (中略) 글자가 있는 破片은 大小 三十九個이고 碑額의 線文이 있는 破片이 十個이며 無文破片이 數十片으로 되어있읍니다.」

오랫동안 궁금하던 古碑의 돌연한 出世에 驚喜하였으며 고려의 名筆 釋坦然의 筆蹟이 또한 歷然하였으나 數十片以上으로 破散되었다는 소식에 失望을 참을 수가 없었다. 동시에 寺僧에 의하여 發掘되어 室內에 옮겨졌다는 것이므로 出土現場과 破損의 정도 그리고 復元의 可否 등을 現地에서 조사코자 三日後인 十月二日 文明大 中榮勲 兩氏와 함께 淸平寺를 찾게 되었다. 비교적 近距離에 두고서도 필자에게는 初行의 길이였다. 夕陽에 淸平寺 入口인 洞口に 이르니 溪谷水石의 美가 먼저 눈에

피었으나 그 初入부터 벌어진 採石場의 荒涼한 破壞相은 눈을 돌리게 하였다. 얼마 아니하여 現存唯一의 古代遺構인 寺門(廻轉門)에 이르니 法殿은 一棟도 남음이 없고 今年에 겨우 改修되었다는 草屋一棟에서 寺僧 數三人이 반가이 맞아주었다. 眞樂公 曾遊의 蹟을 처음 찾아왔다는 感懷가 깊었으나 오늘의 變貌는 너무나 격심한 것이었다. 碑片은 細片에 이르기까지 모두 收拾된 것은 多幸이었으며 住持室에 놓여 있었다. 到着當夜 子正이 남도록 全部의 拓本이 마련되었으며 翌三日에는 發掘現場의 再掘과 寺後에서 庵址를 찾았을 뿐 眞樂公筆의 石刻인 「淸平息庵」 「淸平仙洞」이나 그의 藏骨處^③인 息庵址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寺僧 또한 二、三의 庵址와 寺前溪流의 石臼(公主湯)을 가리킬 뿐 眞樂公 舊蹟의 所在나 上記한 石刻 또는 이곳에 原存하였던 또 하나의 高麗碑인 文殊院藏經碑^④ (金石總覽上卷附三九一六〇六頁) 등에 대하여서는 아는 것이 없었다.

二

碑石은 上記한 바와 같이 火中하기에 앞서서 몹시 破損되어서 朝鮮金石總覽에 收錄될 당시의 寸尺은 「碑身上部及下部缺失 縱四尺 五寸 橫三尺 三寸 字徑七分 行書 題額字徑三寸 楷書」라 하였다. 다행히 朝鮮古蹟圖譜 卷六에는 大板寫眞이 실려 있어서 그 遺貌를 알 수 있으며 또 國立博物館이나 任昌淳 丙庸海氏 등 오랜 拓本이 民間에 남아 있고 金石總覽上卷과 東文選 등에 실려 있어 破損以前の 全文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이번 收拾된 碑片은 이들과 對照하여서 殘存部分과 그 字數 등을 알 수도 있었다. 그런데 이 文殊院記碑는 兩面各異의 글이 새겨져서 前面에는 重修文殊院記가 있고 碑陰에는 「祭淸平山居士眞樂公文」이 記刻되고 있어 文은 金富徹과 慧素가 各別하나 書는 兩面이 모두 고려의 名筆인 釋坦然이다. 그러나 이번에 수습된 碑片은 주로 碑表인 文殊院記이며 碑陰은 오직 小片만이 수습되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文殊院記에 있어서도 題額의 大字로서는 安全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斷割만이 數枚 남아 있어 그 中의 二片은 「院」의 兩劃임이 밝혀졌을 뿐이다. 이같이 碑額이나 碑陰이 많이 보이지 않는 사실 또한 上記한 바와 같이 혹은 兩次的

火中에서 결과 한 것이나 아닐까 한다. 이것은 現場의 再掘에서 그 以上の 出土가 거의 期待하기 어렵다고 추정됨과 收拾된 全字數가 入櫃당시 에 비하여 碑表가 約三分의 二碑陰에 이르러는 三分의 一밖에 아니됨에 서 더욱 그렇기 추정되었다.

收拾된 碑片의 가장 큰 것이 文殊院記에 있어서도 長三七cm × 幅二一cm (字面)이며 碑陰에 있어서는 最大片이 二六cm × 一五cm (字面)이다. 그리고 火中된 까닭과 石質이 脆弱하고 刻가 일어나므로서 原碑의 두께 (厚)를 지니고 表裏 兩面의 刻刻을 原狀대로 보이는 것은 單一片도 없 으며 薄片으로서 分散된 것이 그 大部分을 이루고 있다. 收拾된 碑片의 數와 字數는 다음과 같다. (이 속에는 필자가 十月二日 現場을 再調 할 때 收拾한 小片 十四와 字數計 二十도 包含되었다).



元德重修院文

文殊寺重修記碑

- 一、表面(文殊院記) 三三二
- 二、裏面(眞樂公祭文) 一八

合計 五一 三九五

出土된 碑片數 字數總計 三四〇(四九四字)

(註) 字數總計 밑의 括弧안 數字는 金石總覽이나 古蹟圖譜사전에 의하 여 計數한 罹災以前의 字數일 뿐 完碑의 全文字數는 아니다

다음에 위에서 적은 表裏 兩面의 碑片和 字數를 碑片의 拓本과 金石 總覽과 古蹟圖譜사전에 의하여 文明大氏가 小片에 이르기까지 苦心復 元한 것은 이곳에 別添된 附圖와 같다. 이에 의하여 본다면 火中되기 以前의 모습은 碑石의 初頭와 末尾部分을 除外하고는 尙상하던 것보다

는 相當部分이 復元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동시에 碑陰에 있어서도 碑表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原貌나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런대로 自慰를 삼을 수 있을만도 하다. 碑陰의 殘存部片을 金石總覽에 실은 殘文에서 圓圈으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裏面)

祭清平山居士眞樂公

江西見佛寺沙門慧

維乙巳年八月 日門人坦然等謹

道常無名言而非道長於

夷寂滅正法眼中不留

語默自

情耽躐富貴?

乾坤自爲主盟

神無邪智照皆忘善惡都

玄沙偃溪靈雲桃花側耳□□佛

滴隨器普被既以與人而已

經鍊消融忘想如雲見眼行不

形全德物莫之傷聞以緒餘發爲

其流茫洋厭弃人世神遊寥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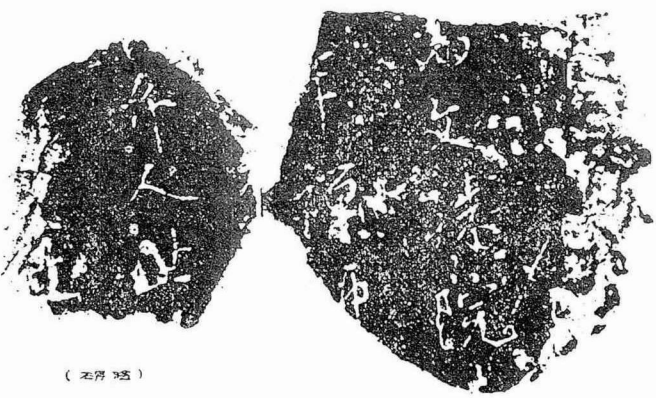
醉顛豫數子舊遊門庭獲聞警欬稍有

其頽梁木其毀世界空虛吾將疇倚我果

위에서 「眞樂公重修清平山文殊院記」 碑片의 出土經緯와 收拾된 表裏兩面의 大小片의 數와 字數를 기록하였다. 이들 碑片은 現在 大片 五個를 住持室에 남기고 殘餘는 모두 다시 임시로 箱子에 넣어 寺內에 保存策이 있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能仁寶殿址 東北隅인 出土現場에 大하 여서도 障차 再調의 기회가 있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極樂殿址에 大하 여서도 碑片殘缺의 存否를 確認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은 이번 에 發見된 碑片이 火中以前에 비하면 相當數不足하고 있어서 그들이 寺址 어느 곳에인가 殘存하고 있을 可能性이 또한 不無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같

은 事由는 碑陰에 있어서 그러하다. 그러나 우선 現在 收拾된 碑片이나 五十一이 넘고 大小와 厚薄을 달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소중하게 永久保存되어야 할 것은 다시 말할 것도 없다. 그것은 고려의 귀중한 書蹟임에서 뿐만 아니라 碑片과 眞樂公과의 關係에서이다. 眞樂公李資玄^⑤의 行蹟에 대하여서도 이 碑가 가장 詳細할 뿐만 아니라 坦然的筆蹟으로서도 그 以外에 清道雲門寺 圓應國師碑가 推定되기는 하나 古來 이 碑石에 대하여서는 일찍부터 內外에 알려져서 上記한 文籍以外에 大東金石書나 大東金石目 海東金石苑 三韓金石總目 등 金石冊에 高루신 려 있으며 또 東國輿地勝覽卷四十六 春川都護府 佛宇 文殊寺條에도 碑文一部가 실려 있어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同寺의 藏經碑와 더불어 完全하였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이 文殊院記碑에 대한 配慮 뿐만 아니라 未發見의 藏經碑(李齊賢撰 李君修書)의 存否에서 나아가 眞樂公筆의 石刻과 그에게 일친 遺蹟과 極樂殿址^⑥ 등 人災와 戰災에 의하여 破壞된 寺址의 基階殘礎나마 조사 되어야 함을 느낄 수 있었다. 비록 이곳에 대한 注目이 매우 늦은 것



(石片殘)

文殊院重修碑片

丁碑是)

이 사실이나 文殊寺碑片 發見이 이곳 自然과 人文에 대한 새로운 着眼의契機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十月十日記)

註

① 普雨의 淸平寺重創과 그의 住錫에 대하여서는 虛應堂集과 懶庵雜著에 많은 記名과 詩文이 보인다.

② 楡岾寺本末寺誌에 淸平寺에 관한 文獻뿐 아니라 傳說이나 所屬庵子名과 그 所在地가 가장 자세히 다.

③ 愚潭의 山中日記에 「仍見眞梁公藏骨處。出見誌石。字刻未能盡釋面。初書公諱。骨在甕中。人人出見。悟欲出以示我。我止之。」云云이라 보이고 있으며 再埋葬된 사실이 楡岾寺本末誌에도 보인다.

④ 大東金石目과 大東金石書(一〇六一—一〇九葉) 東國輿地勝覽

⑤ 高麗史 卷九十五 列傳 卷八 李賁玄條 高麗史節要 睿宗 十二年丁酉 同仁宗 三年 乙巳條

⑥ 極梁殿의 遺影은 古蹟圖譜 卷十二(二七〇—二七三) 計十枚에서 볼 수 있으며 同架構에 대하여서는 杉山信三著 「麗末鮮初의 木造建築研究」(三二二頁—三三五頁)에 보인다.

有段石斧의 二例

李 殷 昌

一 一九六六年 十月二十五日 光州博物館에서 有段石斧 一個를 볼 수 있었다. 이에 對한 盧錫徑 館長의 말에 依하면 珍島에서 出土된 것이라 하는데 그 出土經緯와 遺跡狀況은 모르겠으나 珍貴한 一例이다. 이보다 앞서 筆者는 瑞山郡 海美面 前川里에서 有段石斧로 볼 수 있는 石斧 一個를 收拾할 수 있었다.

二

傳珍島出土有段石斧 ①: 靑石製로 總長 二八cm이며 大體로 圓筒形에

第九卷 第十號 通卷九十九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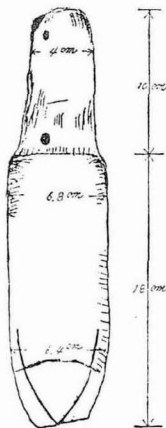
層段이 顯著한데 下半部의 長은 一八cm이요, 直徑은 六·八cm이며 上半部의 長은 一〇cm이요, 直徑은 四cm로 上半部는 下半部의 切半의 크기에 該當된다. 斧身全體를 精磨를 加하였고 斧身의 約三分之一位에서 段을 形成하였으니 上半頭部는 斷面 圓形에 가까운 圓筒形을 이루고 下半頭部는 斷面 橢圓形에 가깝게 扁平하며 蛤雙을 이루었다. 雙部에는 若干의 缺落部分을 發見할 수 있으니 이는 使用에 依한 缺落이라 하겠다 石斧를 一見하여 特히 注目되는 바는 斧身의 約三分之一位線에서 段을 形成한 것이니 全體의 三分之一에 該當되는 上半頭部가 圓筒形을 이루었는데 이것이 段을 이루는 部分에서 連結하여 下半頭部가 全體의 三分之二에 該當되는 크기로 擴大되었다(光州博物館 所藏).

三

瑞山出土有段石斧 ②: 黑色 砂岩製로 總長 一八cm이며 前者와는 달리 斷面 橢圓形으로 扁平하며 그리고 膨張度가 表示되었다. 頭部幅은 四cm 雙部幅은 五cm 中間部는 最大 六cm 厚는 最大 四cm의 數値를 算하고 있는 바 雙部는 蛤雙으로 되었으며 頭部는 扁축하다. 石斧의 全身은 石質關係인지 「정」으로 다듬은 것 같이 細密한 凸凹이 보이고 雙부에 缺落이 있음은 亦是 使用時 打擊에 依한 缺失이라 하겠다. 石斧의 特異點이라 할가 또는 注目되는 바는 斧身·中間位에 層段을 形成하여 上半部는 縮約되어 上部로 漸次가늘어지고 下半部는 擴大되어 下部로 漸次 넓어지고 있는 데 이는 前者와 같이 有段石斧에 屬하는 것이라 하겠다(筆者 所藏)

有段石斧의 詳細圖

1. 珍島出土有段石斧



2. 瑞山出土有段石斧

